

노인교육은 노인복지의 중심



김요컬럼: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인간은 노년기에도 계속
성장해

은퇴준비교육 등 노인교
육 필요

보건□복지□심리상담 병
행하며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한
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어

‘후다닥, 쉬익, 짜당.’

‘인간이 언제까지 성장하
는가’ 하는 것은 고령사회의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과거
에는 인간은 태어나서 일정
기간, 즉 청년기까지만 발달
하고 그 이후엔 발달이 정지
되거나 오히려 쇠퇴하는 것
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50
~1960년대에 인간은 수태에
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신체, 심리, 사회
적 측면에서 발달하고 변화해
간다는 전생애발달(life-span
development) 이론이 등장하
였다. 이에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노년기에도 교육
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다.

노년기는 더 이상 발달할



게 없는 인생의 꼬트머리 부
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완
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성장단계의 하나이다. 노인은
부정적으로는 사회문제의 대
상이지만, 긍정적으로는 위대
한 성취를 이루어 가는 존재
이다. 노인교육은 노인이 직
면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점을 극복하고 원숙한 모습으
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도와
준다.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
며 100세를 넘어 사시는 김형
석 교수는 인간은 75세까지
그 성장한 모습을 연장해 갈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학자들은 “노인은 새로
운 것을 학습할 수 없다”라는
편견에 반대한다. 아니, 오히

려 노인교육은 노인의 자립능
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노인복
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노년학
회 회장인 한정란 박사는 「
교육노년학」에서 노인교육
의 목표를 6가지로 나누는데
노화예의 적응, 사회적응, 자
기계발, 대인관계 확대, 능동
적 삶의 고취, 자립과 사회참여
등이다. 모든 노인단체는,
그 설립목적과 규모가 어떠하
든, 노년기 풍요로운 삶을 위
해 회원들의 특성에 맞는 교
육 프로그램을 항상 포함시
키는 게 필요하다. 대상 노인이
노쇠현상이 심하고 병약해
진 상태라 하더라도 그 상태
에 맞는 교육이 있다.

나는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노인교육에 관련한 경험이 있

다. 우선, 노인학교 설립의 불
이 일었던 90대 초 개신교에
서도 노인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관련자들이
모여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
회’를 설립하였다. 연합회는
전국 교회에 노인학교(경로
대학, 평생대학) 설치를 독려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자(목회자, 교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주 1회
모여 종교집회, 특강, 친교 및
레크리에이션, 중식, 반별 활
동, 연 1~2회의 소풍 등 수
업의 틀이 그때 만들어졌다.
교회 노인학교는 현재 전국
200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
으며 참여자는 주로 70~80
대 노인들이다.

90년대 중반 내가 재직하
던 연세대 사회교육원에 한

학기 과정의 ‘은퇴준비교육
과정’을 개설하였다. 은퇴준
비의 6개 영역(건강관리, 재
산관리, 여가선용, 인간관계,
주거선택, 죽음과 종교)에 관
해 14회 수업을 하였다. 당시
대학에서 이런 주제의 과정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고학력자
들이 많이 모였다. 참여자는
주로 60대 초반, 퇴직 전후에
있는 예비 노인들이었다. 나
는 노년기 자원봉사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고, 수료자들에게
‘문화재보존 원로봉사단’이라
는 특별반을 만들어 문화유적
을 답사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8년 내가 한국노년학회
장으로 있을 때 신노년문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
였다. 그때 미국 장노년층에

게 가장 인기 있는 교육·여
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
리기관인 로드 스칼라(Road
Scholar) 대표자를 초청하였
다. 과거 기관명이 엘더호스
텔(Elderhostel)이었던 때는
참가자가 주로 노인이었는데,
노인과 청장년을 혼합해서 교
육하기 위해 기관명을 바꿨
다. 교육과 여행을 병행하여
지역 욕구도 충족하면서 자연
스럽게 세대 교류가 일어나도
록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
단체는 현재 150개국에 5500
개의 교육·여행 코스를 운영
하고 있으며, 1975년 설립 이
래 45년간 600만 명이 참여하
였다.

지금은 내가 다니는 교회
의 장노년층 신자들을 대상으
로 신앙 안에서 풍요로운 제3
의 인생 설계를 돕는 ‘50+ 아
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활
동적 노화(active aging)’라는
개념을 근거로 하여 4개 영역
(신앙인의 삶, 장노년기의 삶,
문화와 예술, 사명과 헌신)의
전문가를 초청해 12회 강의
를 한다. 참가자는 50~60대
가 주축이다. 두 학기 과정으
로서, 교회에서 하는 은퇴준
비교육인 셈이다. 수강자와
수료자가 함께 자치회를 결성
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노인교육은 노인복지를 향
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하다. 그동안 노인교육에
관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교육이 그 효과를 더 잘
발휘하기 위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그것은 교육과
함께 보건, 복지, 심리상담 서
비스가 병행되어 제공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년기는
대인 접촉과 대외 활동이 제
한됨에 따라 삶의 다양한 욕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무슬림은 프랑스인 죽일 권리 있다”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
이시아 총리가 프랑스 니스
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
한 흉기 테러 직후 “무슬림에
겐(프랑스의) 과거 대량 학살
에 대해 분노하고 수백만명의
프랑스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29일(
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주장하며 “무슬림에게는
프랑스인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과거 프랑스가
수많은 무슬림을 죽였기 때
문에 무슬림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95세인 마하티르 전 총리
는 1981~2003년 22년 간 총
리로 장기집권했고, 2018년
5월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가
올해 2월 정국 혼란으로 인해
총리직에서 내려왔다. 그는
지난 8월 국가부패를 척결하
겠다고 신당을 창당했다. 한
때 세계 최고령 국가 정상이
었던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이
슬람 문화권의 원로이기도 하
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프랑
스의 중학교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그
림을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
주의에 빠진 18세 청년에게



참수당한 사건에 대해 “그 살
인은 무슬림으로서 내가 찬성
할 만한 행위가 아니다”면서
도 “그러나 나는 표현의 자유
를 믿지만 나는 그것에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 포
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그는 “우리는 종종 서방의
방식을 모방하지만, 우리는
인종과 종교가 다른 우리 만
의 지속해야 할 가치관을 갖
고 있다”면서 “우리의 가치
체계도 인권의 일부”이라
고 했다. 문화권마다 드레스
코드가 다르다는 예를 든 그
는 “서방의 많은 이들이 특
정한 해변에 있을 때 완전히 나
체 상태로 있다”며 “서방은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
이지만, 서방은 이를 다른 나
라들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
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

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일반
적으로 서방은 더 이상 자신
들만의 종교를 고수하지 않는

▲ 29일(현지 시각) 프랑
스 니스의 한 교회에서 사람
들이 흉기 테러 사건으로 숨
진 3명의 희생자를 위해 기
도하고 있다.



▲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EPA 연합뉴스

다. 이는 그들의 권리”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타인의 가치,
타인의 종교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이 같
은 존중을 보이는 것은 문명
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고 했다. 이어 “마크롱(에마누
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이 문명화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그는 그
모욕적인 교사를 살해한 것에
관해 이슬람교와 무슬림을 비
난하는 데 있어 매우 원시적”

이라고 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그러
면서 “내세우는 종교와 관계
없이 분노한 사람은 살해를
한다”며 “프랑스인들은 그들
의 역사에서 수백만명의 사람
들을 죽였고, 대다수가 무슬
림이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대체로
무슬림들은 ‘눈에는 눈, 이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왔다.
무슬림은 그러지 않는다”면
서 “프랑스인들은 국민들에
게 남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
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
어 “당신이 한 사람의 분노한
사람이 저지른 일을 두고 모
든 무슬림들과 무슬림의 종교
를 비난했기 때문에 무슬림은
프랑스를 처벌할 권리가 있
다”고 했다.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 이슬람권 국
가들의 긴장이 고조됐긴 했지
만, 많은 이슬람권 국가들이
이번 니스 테러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마하
티르 전 총리의 글은 돌출적
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위터
는 마하티르 전 총리가 올린
글 중 일부를 자사 규정을 위
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했
고, 뒤이어 해당 트윗 글은 삭
제됐다. AFP통신은 “마하티
르 전 총리의 글은 트위터에
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
고 전했다.